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종단적 관계가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지원**· 최지은***· 김현경****

I 알기 쉬운 개요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청소년기의 위험 행동(담배, 마약 등의 물질사용, 음주문제, 도박, 자살시도 또는 행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에 반해 이들이 정규 교육 환경 외에서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진입할 때의 적응에 대한 종단적 연구나 위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이질적인 집단이기에 이들을 단순히 위험집단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책임 있는 성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보호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해 이들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설명하는 취약성과 보호요인을 종단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자기통제의 강도 모델과 낙인감의 자아 고갈 모델을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 성인 진입기 적응의 위험요인인 낙인감과 보호요인인 자기통제가 상호 양방향적 영향관계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낙인감의 종단적인 영향력과 자기통제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종단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3A2A03088949).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 전공, 석사·박사 통합과정, belajolla@yonsei.ac.kr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jieunchoi1123@gmail.com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 융합 전공교수, 교신저자, hyoungkim@yonsei.ac.kr

투 고 일 / 2023. 5. 13.

심 사 일 / 2023. 8. 23.

심사완료일 / 2023. 8. 24.

I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양방향적 연관성을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담배, 마약 등의 물질사용, 음주문제, 도박, 자살시도 또는 행동)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1~4차년도)를 이용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분석한 뒤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결과 변수로 추가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은 다음 해의 자기통제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보인 반면, 자기통제가 다음 해의 낙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이 자기통제 능력을 낮춤으로 인해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높이는 낙인감의 연쇄적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이 이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을 밝혔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 진입기의 위험 행동을 설명하는 종단적 발달경로를 새로운 이론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 중단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낙인감이 성인 진입기의 위험 행동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통제 능력의 매개역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성인 진입기 적응을 위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학교 밖 청소년, 낙인감, 자기통제, 성인 진입기 적응, 위험 행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당하는 학령기 인구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를 뜻한다(여성가족부, 2021). 2021년 기준 국내 학교 밖 청소년은 145,818명으로 추정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23).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dropout) 청소년”으로 불리며, 학교를 자퇴하거나 미진학 또는 퇴학 및 제적 처분을 당한 비행 청소년 또는 중퇴자 등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이름으로 불리었다(김지혜, 2021).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이유는 청소년 시기 학교 중단이 청소년 개인의 사회 정서적 발달(예,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우울 및 불안 등; 박동진, 김나연, 2019; Liem, Lustig, Dillon, 2010)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의 영향이 크다(OECD, 2007).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담배 등의 물질 사용, 음주 관련 문제, 자살 행위 등 높은 위험 행동의 가능성 때문에 보건 및 사회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여성가족부, 2014).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위험 행동(risky and delinquent behaviors)은 담배나 마약 등의 물질 사용, 음주 문제, 위험한 성행위 등의 건강 위험 행동(health risk behaviors)과 도박이나 폭력 등의 범죄 활동, 자살 시도나 행동 등을 포괄하는 모험적이고 무모하며 반사회적인 성격을 지닌 행동을 말한다(Hair, Park, Ling, Moore, 2009; Michael, Ben-Zur, 2007).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며 일일 흡연자의 비율은 59.5%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보다 12.4배 높았다(Park, Kim, 2016).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험집단(at-risk) 청소년의 일상적 음주나 자살 생각/행동의 비율은 저위험 청소년에 비해 7-10배 높았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연구원, 2016).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욕구와 배경을 가지고 학교 중단을 선택한 이질적인 집단이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따라서 이들 모두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을 단순히 위험집단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이자 성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보호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해 이들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설명하는 취약성과 보호요인을 종단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생애과정 속에서 성인 진입기는 일반적으로 각종 위험 행동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위험요인의 양방향적, 종단적 연관성이 이들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설명하는 종단적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는 일반적으로 18~25세 사이, 현대사회에서 성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나타난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를 뜻하는 새로운 발달단계이다(Arnett, 2000). 역할에 대한 제약이나 책임이 적다는 점에서 성인기와 차별되면서 청소년기의 정체성 탐색(identity exploration)을 지속하는 단계이자 청소년기도 아닌 어중간한 정체감(feeling “in-between”), 실험/가능성(experimentation/possibilities), 부정성/불안정성(negativity/instability), 자기 자신에 대한 집중(self-focused)을 특징으로 한다(Arnett, 2005). 성인 진입기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른 발달단계보다 담배, 음주 등의 물질 사용 및 위험 행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rnett, 2005). 미국의 경우 21세부터 25세까지의 성인 진입기 중 70%가 음주를 하며, 이 중 44%가 지나친 음주(binge drinking)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nett, 2005). 우리나라도 20대 초반의 음주 및 폭음률이 가장 높다(전경숙, 이효영, 2010).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 진입기에 관한 연구는 백인, 중산층, 대학생(Global North)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Arnett, 2016; Schwartz, 2016), 우리나라 역시 성인 진입기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예, 유태정, 김석선, 2015; 김병년, 최홍일, 2013). 이에 청소년기에 학교를 중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인 채로 성인 진입기를 맞이한 “잊힌 절반(forgotten half)”의 위험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Maggs, Jager, Patrick, Schulenberg, 2012; Schwartz, 2016).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 다른 맥락과 환경에서 성장하기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적응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에 반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적응, 특히 위험 행동 수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이들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의 심각성을 결론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의 위험 행동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학교 내 청소년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진흥원, 2019)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각종 위험 행동은 복지나 사회적 개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험 행동은 종단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경험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Park, McCoy, Erausquin, Barlett,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전생애 발달과정에서 특정 전환기(transition)의 경험과 사건은 이후 삶의 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Elder Jr., 1998).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기 학교 중단이라는 사건 이후 삶의 궤적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 성인기로의 전이 시기 역시 모든 이가 경험하는 주요 전환기 중 하나이다. 이들의 종단적 적응 결과는 전환기 동안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나타날 것이다. 이때 자기통제는 위험 행동을 예방하는 잘 알려진 개인 내적 보호요인 중 하나인 반면, 낙인감은 대다수가 학력이 높고 교육적 성취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환경적으로 형성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적인 인식으로 개인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인옥, 이은옥, 2006).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살펴보고, 이를 종단적으로 위협하거나 보호하는 두 가지 요인,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영향과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낙인감과 자기통제가 종단적으로 양방향적 연관성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낙인감이란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평가 절하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오염된 정체성"(Goffman, 1963)으로 정의된다. 낙인이론은 범죄학에서 대표적으로 일탈과 비행의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이다. 낙인이론은 범죄자와 비범죄자 사이에 근본적으로 생리적, 심리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는 개인적 관점(예, 특질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정신분석 이론 등)과 달리, 비행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에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시적인 관점 중 하나이며, 그중에서도 비행이 형성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social interaction)에 주목한다(Seigel, Welsch, 2018). 즉, 어떤 행위를 범죄 또는 비행으로 규정하고, 행위자를 비행 청소년 또는 범죄자로 규정하는 사회의 반응이 낙인을 생성하고, 이후 범죄/비행의 재발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은 상황적, 문화적으로 유도되기 때문에(Guzman, Goto, Wei, 2016), 서양 문화권에서는 주로 성소수자나 인종 기반의 낙인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예: Lenhardt, 2004).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낙인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이지혜, 조은호, 박미연, 김현경, 2020; 최지은, 이지원, 정다빈, 이해나, 김현경, 2020).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고 성인기 적응(예, 진로, 취업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은 외, 2020). 또한 최근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이질적인 맥락적 위험 프로파일(예: 가정환경, 이른 중단, 복합적 위험요인 등)에 따라 이후 성인 진입기 정신건강 수준이 달라졌는데 이때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Lee, Park, Kim, 2023). 우리나라는 25~34세 전체 인구의 97.8%가 중등교육 이상, 69.8%가 고등교육을 이수하며 (통계청, 2021),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이수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에 큰 가치를 두고 인구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나라이다

(OECD, 2020).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학교 성적'이 청소년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이기 때문에,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된 집단이 되고 이에 따라 낙인감을 경험하기 쉽다. 즉, 낙인감은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이 상황적, 문화적으로 경험하기 쉬우며, 이들의 부정적 적응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자기통제 이론은 낙인이론과 달리 범죄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행동적 기질 또는 그로 인한 개인의 인지 과정에 주목하였다(Hirschi, 2004). 자기통제는 즉각적인 충동을 조절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Baumeister, Vohs, Tice, 2007). 이후 Gottfredson과 Hirschi(1990)에 의해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으로 발전하면서, 개인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유대와 결속이 약할 경우 충동적인 개인적 특질이 발휘되어 반사회적 행동이 쉽게 유발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개인적 특질과 사회의 상호작용으로서 비행 행동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통제는 성공적인 성인 진입기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정신과 신체 건강을 비롯해 학업 성취나 성공적 대인관계 등 다양한 긍정적 적응 지표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ngney, Baumeister, Boone, 2004). Gottfredson과 Hirschi(1990)에 따르면 자기통제는 청소년기 후반부터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이때 자기통제가 형성되는 주요 원천 중 하나는 누군가가 행동을 감시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와 같은 사회적 제도와 구조적인 환경은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의 역할을 하며 청소년 개인이 유혹에 저항하고 자제할 수 있도록 보상이나 처벌 등 외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Fishbach, Trope, 2005). 학교에서 외부적으로 부과된 이러한 사회적 통제는 충동적이고 즉각적 보상을 추구하는 청소년기 특유의 발달적 경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기 동안 공식적인 교육기관과 사회적인 통제 밖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학교에서 사회적 통제의 도움으로 자기통제력을 키울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통제 능력은 성인기 적응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역량이자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 및 발달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종단적 양방향적 연관성과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양방향적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데, 전통적인 자기통제 강도 모델(strength model of self-control; Baumeister et al., 2007)과 이로부터 분화된 최근 이론인, 자아 고갈 모델(ego depletion model; Inzlicht et al., 2006)을 통해 이상의 두 요인 간 양방향적 연관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기통제 강도 모델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개인의 심리적 에너지가 어떠한 특정 활동에 집중된다면 자기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줄어든다고 설명한다(Baumeister et al., 2007). Inzlicht와 동료들(2006)은 이러한 자기통제의 기본 특성을 낙인과 연결시켜 낙인감의 자아 고갈 모델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낙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성적으로 경험하고, 고정관념적인 위협에 의해 낙인감을 경험하지 않는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와 좌절에 빠지기 쉽다(Steel, Spencer, Aronson, 2002). 이때 낙인감을 경험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평가절하된 사회적 정체성을 관리하기 위해 자기통제를 사용하고 고갈시키며, 따라서 낙인감을 겪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른 영역에서 자기통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쉽게 고갈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낙인감을 경험할 경우(예, 인종적 소수자 또는 여성),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자기통제 능력이 제한되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예: Inzlicht et al., 2006; Inzlicht, Schmeichel, 2012) 흑인 참여자들에게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 고정관념을 상기시켜주자 이후 참여자들의 자기통제 수준과 이를 통한 성과가 감소하였다(Inzlicht et al., 2006). 즉, 낙인감은 개인의 행동과 그 행동을 통제하는 근본적인 능력인 자기통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Inzlicht et al., 2006). 청소년의 낙인감은 자기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낙인감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좌절감을 유발해 자기통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높이고(김진숙, 신혜숙, 문현주 2014), 청소년 스스로 사회적 낙오자로 느끼는 경우 우울, 불안과 함께 충동성, 공격성, 분노로 이어져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박시하, 2015). 이처럼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일방향적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다(예, 이래혁, 2021; 이재경, 이래혁, 2023).

이렇듯 자기통제를 위한 자원이 한정되어 단기적으로 자기통제가 필요한 여러 상황(예, 낙인감)에 한꺼번에 직면한 경우에는 자기통제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반대로 자기통제 능력은 장기적으로 강화 및 증진도 가능한 능력이다. 자기통제의 강도 모델에서는 자기통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수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자기통제 능력이 강화,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근육운동 직후에 근육이 피로해져 사용하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오히려 강화되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Baumeister et al., 2007; 김양태, 2016). 추가로 Inzlicht와 동료들(2006)은 높은 자기통제력 수준이 낙인감과 낙인감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Inzlicht et al., 2006).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상황과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Prasetyo, Gunawijaya, 2018). 즉,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자기통제 수준이 높거나, 또는 개선된 자기통제로 인해 더 나은 삶의 조건이 달성된다면 학교 중단 이후 낙인감이 줄어들고, 낙인감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낙인감과 자기통제가 각

각 또는 일방향적 관계에서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구되어왔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낙인감은 음주행동을 비롯한 위험 행동을 약 2.3배 증가시켰고(이재경, 이래혁, 2023) 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와 그로 인한 충동성은 청소년기 위험 행동을 높이는 유의한 역할을 하였다(박현숙, 정선영, 2011; 윤혜미, 남영옥, 2007). 또한 높은 낙인감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를 낮추고 충동성을 높여 음주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등 매개효과도 확인되었다(이재경, 이래혁, 2023).

반면 Inzlicht와 동료들(2006)의 낙인의 자아 고갈 모델에서는 추가로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양방향 연관성이 이후의 적응양상에까지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낙인감으로 인해 자기통제의 고갈 효과가 있을 경우 개인의 성취도는 낮아지고, 공격성은 높아졌으며, 이는 이후의 위험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낙인감이 낮아져 위험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Baumeister et al., 2006). 그러나 이러한 파급효과가 종단적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중단 이후 후기 청소년기부터 성인 진입기까지 전환 과정 동안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종단적 인과관계를 밝히고, 학교 밖 청소년 성인 진입기의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연구모형 그림 1 참조).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후 후기 청소년기부터 성인 진입기까지의 낙인감과 자기통제는 종단적으로 양방향적인 부적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종단적 양방향적 연관성은 성인 진입기의 위험 행동을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줄이고, 적응을 돕기 위한 실천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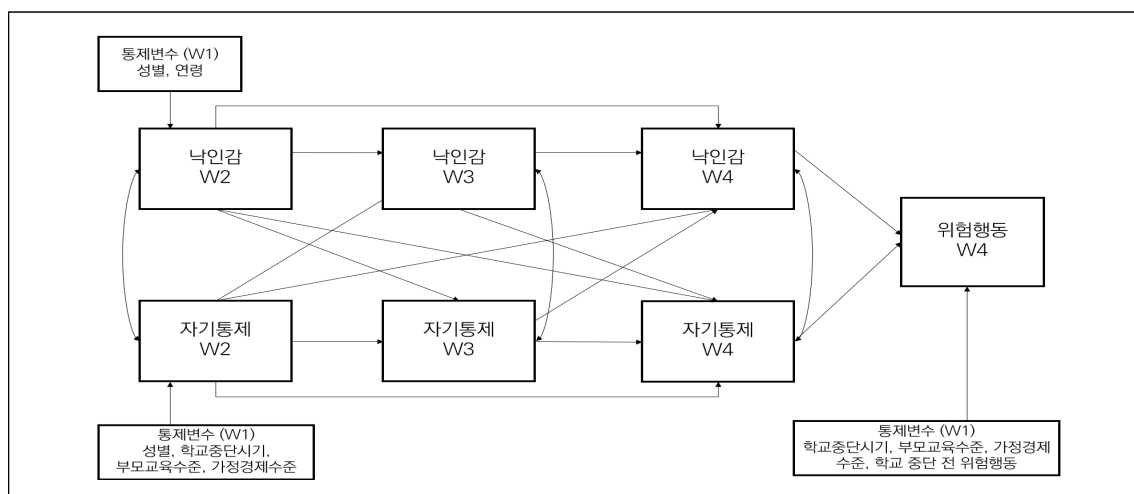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후의 삶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1~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학생들 중 2012년 7월 이후 중·고등학교 학교 중단 경험의 공식기록이 있는 대상자를 모집하고, 직업학교, 대안학교, 그리고 검정고시 학원에서 추가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총 776명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2013년(1차년도)을 시작으로 2017년(5차년도) 까지 매년 수집했으며 청소년들은 1차년도에 14~20세였다.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대비 77.2%(2차년도), 63.7%(3차년도), 55.0%(4차년도), 41.0%(5차년도)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본 연구는 대상자가 학교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기간을 유사하게 맞추고자 3년 이내에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인 진입기 적응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4차년도에 이르러 성인기가 되지 않은 연령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은 2차년도 수집 당시 연령이 17세 이상 19세 이하의 후기 청소년인 총 507명(여자 n=219)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차년도에 17.46세($SD=0.66$, 범위=17~18세)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들이 제외된 대상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즉, 청소년의 연령, 성별, 학교 중단 사유, 학교 중단 시기, 부모 교육 및 경제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 포함된 청소년들이 제외된 청소년들에 비해 유의하게 어렸으나 연령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연구도구

1) 낙인감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은 후기 청소년기(2차년도)부터 성인 진입기(4차년도)까지 Harvey(2001)가 개발하고 주금옥(2002)이 변안한 낙인척도의 8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예,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4(매우 그러함)로 측정되었으며, 2~4차년도 차수별 Cronbach's α 를 확인하고, 각각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alpha=.82, .85, .82$).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밖 청소년이 인식하는 낙인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자기통제

학교 밖 청소년의 후기 청소년기(2차년도)부터 성인 진입기(4차년도)까지의 자기통제는 Gramsick 외(1993)가 개발한 충동성 척도의 5개 문항을 사용했다. 해당 척도는 충동적 기질(예,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외에도 위험 추구 성향(“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그리고 장기적 결과를 무시하고 단순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바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문항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사용한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사용되었다(예, 임하늘, 최재용, 2021). 이는 기존 자기통제이론에서 개인적 기질로서 낮은 자기통제력, 즉 충동적이고 위험한 일을 추구하며, 특정 행동에 대한 장기적 결과를 무시하는 경향(Gottfredson, Hirshi, 1990)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통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사용했다.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4(매우 그러함)로 측정되었으며, 2-4차년도 차수별 Cronbach's α 를 확인하고, 각각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alpha = .76, .74, .79$).

3)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

본 연구에서 위험 행동(risky and delinquent behaviors)은 담배 등 물질 사용, 음주 문제 등의 건강위험 행동과 도박이나 폭력 등 범죄 행동, 자살 시도나 행동 등을 포괄하는 모험적이고 무모하며 반사회적인 성격의 행동으로 정의하였다(Hair et al., 2009; Michael, Ben-Zur, 2007).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은 4차년도에 측정된 4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는 최근 1년간 4가지 위험 행동(음주, 흡연, 도박, 자살행동)을 각각 경험했는지 여부를 보고했다. 각 위험 행동을 경험한 비율은 음주 48.1%, 흡연 36.1%, 도박 8.3%, 자살행위 1.8% 순이었다. 각 위험 행동의 경험여부를 합해 0(1가지도 경험하지 않음)에서 4(4가지 모두 경험함)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종류의 위험 행동에 참여했음을 나타낸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 학교 밖 청소년의 1차년도 연령, 성별, 학교 중단 시기, 부모의 교육 수준 및 가구 경제적 수준, 그리고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을 사용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초기(2차년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을 투입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낙인감과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는 청소년의 외적 맥락(즉, 부모교육수준과 가계경제적 지위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 학교 중단 시기)과 함께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 수준을 통제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감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고(최홍일, 정윤미, 2020; 백혜정, 2009),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맥락(예, 부모 교육 수준, 가계경제적 지위)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 중단 시기가 낙인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 근거하였다(이래혁, 2021; 조수민, 안은미, 정익중, 2020). 종속 변수의 개인별 초기값(baseline)에 해당하는 학교 중단 전의 위험 행동 수준을 통제한 것은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설명하는 본 연구결과가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변화 및 종단적 관계에 의한 영향임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를 0, 여자를 1로 코딩하였다. 학교 중단 시기는 최초 학교를 중단한 시기로, 중학교 시기 중단은 0(20.9%), 고등학교 시기 중단은 1(79.1%)로 측정하였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교육연수로 계산해 0(무교육)에서 18(대학원 수준)의 총 7개 범주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교육 연수($M=12.93$ 년, $SD=3.00$)와 어머니의 교육 연수($M=12.86$ 년, $SD=2.88$)의 유의한 상관관계($r=.61$, $p<.01$)를 확인하고 평균을 내었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1(매우 빈곤)에서 7(매우 부유함)로 측정했고, 중위수는 4(평균 수준)이었다. 청소년의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은 1차년도에 측정된 4개 항목(음주, 흡연, 도박, 자살행동)을 각각 경험했는지 여부를 합해 0(1가지도 경험하지 않음)에서 4(4가지 모두 경험함)로 사용하였다. 각 위험 행동을 경험한 비율은 음주 53.3%, 흡연 57.8%, 도박 15.3%, 자살행위 16.1% 순이었다. 가구 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 수준 간 공변량 그리고 청소년의 성별, 부모교육수준, 그리고 학교 중단 초기 낙인감, 자기통제의 학교 중단 위험 행동 수준과의 공변량을 허용하였다.

3. 분석방법

SPSS 29.0을 이용해 연구 대상의 분석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Mplus 8.3(Muthén and Muthén, 1998-2017)을 사용해 반복측정된 낙인감과 자기통제 변수를 이용하여 자기 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 모형)을 분석한 뒤, 여기에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결과변수로 추가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ARCL 모형은 동일 변수의 특정 시점의 값이 이전 시점의 값에 의해 설명되는 자기회귀 모형(autoregressive model)과 두 변인 간 종단적 상호 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이다(Selig & Little, 2012).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후기 청소년기(2차년도)부터 성인 진입기(4차년도)까지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각각의 종단적 변화의 안정성을 설명하고자 자

기 회귀 경로(autoregressive path)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시점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차지연 예측(cross-lagged prediction)을 위하여 후기 청소년기부터 성인 진입기까지의 전환기 동안의 한 시기의 낙인감이 다음 시기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한 시기의 자기통제가 다음 시기의 낙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ARCL 모형을 확장해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종단적 연관성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경로를 분석하였다. 매개경로의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과 95%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Nakagawa, Cuthill, 2007). 모델 적합성은 비교 적합성 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터커-루이스 지수(Tucker-Lewis Index; TLI), RMSEA(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판단하였다. CFI와 TLI는 0.95이상, RMSEA는 0.06이하 여부를 확인하고(Hu, Bentler, 1999) 추가로 RMSEA의 90% 신뢰구간의 하한 값이 0에 가깝고 상한 값은 0.08 이하일 때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판별하였다(Tabachnik, Fidell, 2011).

본 연구는 차수별 표본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적용해 결측값이 존재하더라도 편향되지 않고 강건한 표준 오차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Mutén & Muthén, 1998-2012). 연구 변수 중 부모의 교육 수준(12.6%),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19.5%-40%; W2-W4),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통제(19.5% ~ 40%; W2-W4), 그리고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40%)에서 각각 결측값을 확인하였다. Little의 Missing Completely At Random(MCAR) 검증을 통해 완전 무작위 결측 가정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chi^2=124.24$, $df=107$, $p=.12$).

표 1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50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연령 (W1)	-												
2 성별 (W1)	-.04	-											
3 학교 중단 시기 (W1)	.51**	-.02	-										
4 부모의 교육수준 (W1)	-.03	-.01	-.11*	-									
5 가구 경제적 수준(W1)	.10*	-.09*	.06	.31**	-								
6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 (W1)	.13**	-.17**	.16**	-.20**	-.05	-							
7 낙인감 (W2)	-.08	.11*	-.07	-.07	-.11*	.02	-						
8 낙인감 (W3)	-.06	.01	-.12*	-.13*	-.18**	.00	.40**	-					
9 낙인감 (W4)	-.07	.09	-.03	-.07	-.14*	.03	.28**	.43**	-				
10 자기통제 (W2)	.06	-.01	.00	-.04	-.01	-.19**	-.29**	-.13*	-.13*	-			
11 자기통제 (W3)	-.08	-.01	-.03	.05	.06	-.15**	-.30**	-.37**	-.20**	.42**	-		
12 자기통제 (W4)	-.04	-.03	-.03	.10	.10	-.17**	-.22**	-.29**	-.35**	.34**	.46**	-	
13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 (W4)	.14*	-.34**	.12*	-.08	.04	.56**	.07	.14*	.06	-.19**	-.20**	-.24**	-
<i>M</i>	17.46	0.43	0.79	12.81	3.80	1.47	2.05	2.04	2.01	3.04	3.11	3.19	1.57
<i>(SD)</i>	(0.66)	(0.50)	(0.41)	(2.73)	(1.17)	(1.18)	(0.45)	(0.45)	(0.43)	(0.59)	(0.53)	(0.53)	(0.94)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 0=남자, 1=여자; 학교 중단 시기 0=중학교 중단, 1=고등학교 중단.

III. 연구결과

1. 연구 변수의 특징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결과는 표 1에 있다. 동일 변수의 반복 측정사이의 종적 연관성은 모든 차수에 걸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모두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동일한 변수 사이의 상관이 학교 중단 초기부터 초기성인이 된 시점까지 정적으로 유의했다($r=.28\sim-.43$; $p<.01$).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의 상관은 학교 중단 이후 후기 청소년부터 성인 진입기에 걸쳐 부적 연관성을 보였다($r=-.29\sim-.37$; $p<.01$).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은 오직 3차년도에서만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 수준과 정적 연관성을 보였다($r=.14$; $p<.05$). 반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통제는 학교 중단 이후 후기 청소년기부터 성인 진입기에 걸쳐 성인 진입기의 위험 행동 수준($r=-.19\sim-.24$;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교 중단 초반(2차년도)인 청소년기에는 여학생의 낙인감이 더 높았고($r=.11$; $p<.05$),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은 남학생이 더 높았다($r=-.34$; $p<.01$). 부모의 교육 수준은 3차년도 낙인감과($r=-.13$; $p<.05$), 가구 경제적 수준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중단 이후 성인 진입기까지 낙인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11\sim-.18$; $p<.05$).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은 연령이 높은 청소년($r=.13$; $p<.01$)과, 남학생이 더 높았고($r=-.17$; $p<.01$), 학교 중단 시기와 정적 상관($r=.16$; $p<.01$),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 수준과 높은 정적 상관($r=.56$; $p<.01$)을 보였다. 그 외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통제와 통제변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자기회귀 효과(autoregressive effect)와 교차지연 효과(cross-lagged effect)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종단적 자기 회귀 모형의 모델핏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69.70$, $df=41$, $p<.01$; RMSEA=0.04, 90% C.I.= 0.02~0.05; CFI=0.95; TLI=0.92). 같은 변수의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나타내는 1차, 2차 자기회귀(the first-and second-order autoregressive effects)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냈다. 먼저, 통제변수 및 이전 시기의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을 반영한 이후에도 모든 차수에서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1년 간격의 1차

자기 회귀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beta=.34\sim.37$; $ps<.001$) 이는 중간 정도의 유의한 안정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년 차이를 두고 2차 자기회귀를 살펴본 결과(그림 1), 자기통제에서만 유의한 안정성이 나타났고 그 정도가 1차 자기 회귀 효과보다 적었다 ($\beta=.16$; $ps<.01$). 종합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초반 이후인 후기 청소년기부터 성인 진입기까지 낙인감과 자기통제는 각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동시 상관성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중단 이후 성인 진입기까지 모든 차수에서(W2-W4)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29, -.31, -.25$; $ps<.001$).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성인 진입기까지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교차지연효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1). 학교 중단 초반(W2, W3)인 후기 청소년기의 높은 낙인감 수준은 다음 해(W3, W4)의 자기통제를 낮추었다($\beta=-0.18, -0.13$, $ps<.05$). 그러나 자기통제의 이후 낙인감 수준에 대한 교차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사이의 양방향 효과에 대한 가설은 부정되었고, 낙인감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일방향적 영향만 확인되었다.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종단적 교차회귀관계에서의 매개효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 표 2에 제시하였다. 성인 진입기(W4)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매개, 간접 효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학교 중단 초반(W2)인 후기 청소년기 낙인감 수준이 높을수록 다음 해 낮은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성인 진입기(W4)의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이어졌다($\beta=0.12$; 90% C.I.=0.06~0.17).

3.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종단적 영향이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낙인감과 자기통제가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2와 같다. 간접효과와 경우, 학교 중단 직후인(W2) 후기 청소년기의 높은 자기통제는 다음 해(W3)와 성인 진입기(W4)의 자기통제 수준을 유지시켜, 성인 진입기(W4)에 낮은 수준의 위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0.03$; 90% C.I.=-0.06 ~ -0.01). 또한 학교 중단 직후인(W2) 후기 청소년기의 높은 수준의 낙인감은 다음해(W3)와 성인 진입기(W4)의 자기통제 수준을 순차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는 다시 성인 진입기(W4) 위험 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0.02$; 90% C.I.=0.0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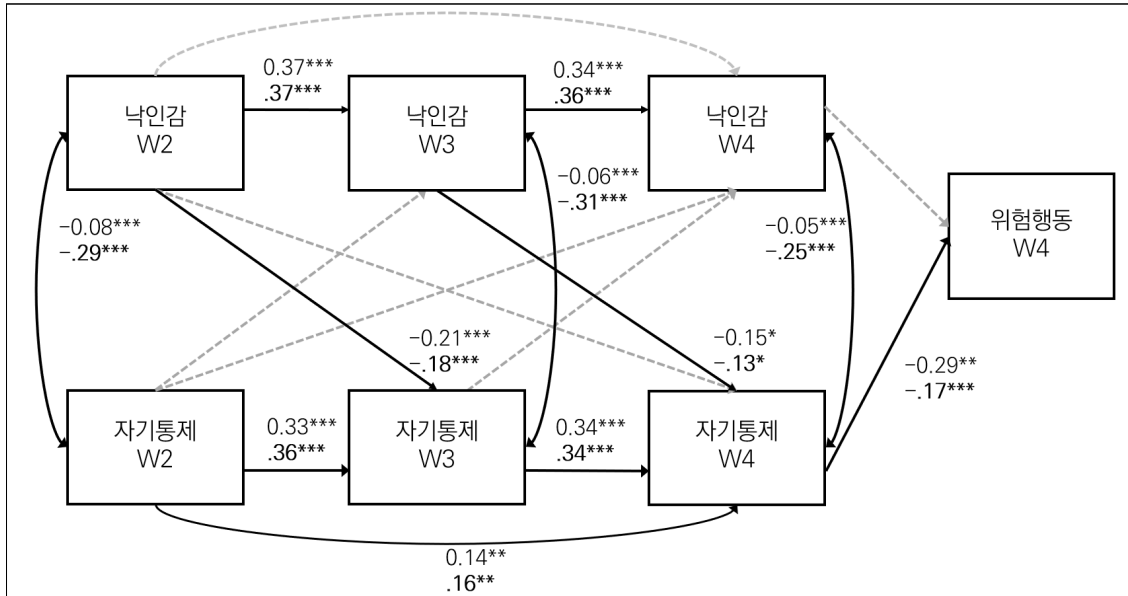


그림 2. 후기 청소년-성인 진입기 전환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결과 및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주: 유의한 경로만 계수를 기재하였으며, 일반글씨는 비표준화계수, 굵은 글씨는 표준화계수를 뜻함.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회색 점선으로 표시함. 통제변수 (연령, 성별, 학교 밖 시기,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 경제적 수준, 학교 중단 전 위험 행동)는 그림에서 생략함.

표 2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종단적 관계가 성인기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간접효과

경로						Coef.	(SE)	CI
성인 진입기 자기통제(W4)에 미치는 간접효과								
W2		W3		W4				
자기통제	→	자기통제	→	자기통제		0.11	(.03)	0.06 ~ 0.17
낙인감	→	자기통제	→	자기통제		-0.07	(.02)	-0.12 ~ -0.04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W4)에 미치는 간접효과								
W2		W3		W4	W4			
자기통제	→	자기통제	→	자기통제	→ 위험 행동	-0.03	(.01)	-0.06 ~ -0.01
낙인감	→	자기통제	→	자기통제	→ 위험 행동	0.02	(.01)	0.01 ~ 0.04

주: 유의한 결과만 나타냈으며 계수는 비표준화계수임.

IV. 논 의

우리나라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학교를 중단한 고위험집단(at-risk)으로 분류되고, 성인 진입기는 위험 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성인 진입기가 되었을 때 위험 행동에 대한 취약성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 및 중단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적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중단적 변화 및 양방향적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성인 진입기까지의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3년 간의 일관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 결과는 낙인감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자아통제 수준이 다음 해에도 유의하게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자아통제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낙인감 수준이 다음 해에도 유의하게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 중단 이후 낙인감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들은 성인 진입기까지 높은 수준의 낙인감을 유지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중단 초기 시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통제는 청소년기 후반부터 성인기까지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Gottfredson, Hirschi, 1990) 학교 밖 청소년도 그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은 다음 해의 자기통제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나 자기통제는 다음 해 낙인감 수준을 낮추지 못해 자기통제에 대한 낙인감의 중단적 일방향적 영향만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낙인감이 충동성 또는 낮은 자기통제를 매개로 청소년의 비행 또는 위험 행동의 동시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예, 박시하, 2015; 박현숙, 정선영, 2011; 이재경, 이태혁, 2023). 이에 더하여 본 연구모델은 1년 전 자아통제 수준의 영향을 반영(통제)하였기 때문에 낙인감이 다음 해 자기통제의 유의한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nzlicht와 동료들(2006)이 발전시킨 낙인감의 자아 고갈 모델의 가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낙인감의 자아 고갈 모델은 자기통제를 에너지 모델로 설명한 자기통제의 강도모델에서 출발하였지만 낙인감의 특수한 효과를 잘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던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양방향적 관계 가운데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낙인감의 영향이 더욱 지배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가 자신을 부정적 또는 열등하게 볼 것이라고 여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오염된 자아상이 자기통제라는 내적 역량까지 중단적으로 오염시킨 것을 뜻한다. 또한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통제

능력을 사용하느라 자기통제가 요구되는 다른 영역(예, 주의집중하기, 감정과 충동 조절하기, 의사결정하기)에 사용할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낙인감 자아 고갈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인감의 두드러진 영향은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에 특수한 것일 수 있다. 자기통제를 에너지모델로 설명한 이론들에서는 자기통제가 한정된 자원임을 공통적으로 말하지만 대상에 따라 자기통제를 고갈시키는 맥락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김양태, 2016).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자기통제를 고갈시키는 주요 맥락이 낙인감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자기통제가 다음 해의 낙인감을 낮추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아 자기통제가 낙인감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Inzlicht(2006)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기통제의 편차가 적어서, 또는 학교 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낙인감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영향력이 커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Inzlicht(2006)의 제안이 단기적인 실험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본 연구와 측정방법 또는 종단연구라는 분석방법에 의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즉, 자아통제가 낙인감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간에는 나타났다가 곧 원상 회복되는지 혹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본 연구모델에서 다른 기간인 3년 이상에 걸쳐 천천히 나타날지 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낙인감의 연쇄적인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 중단 전의 위험 행동 수준을 통제하여 연구결과가 낙인감과 자기통제의 변화 및 종단적 관계에 의한 영향임을 확인한 결과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종단적 낙인감의 영향이 이전 해의 낙인감과 자기통제 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낙인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박동진, 김나연, 2019), 중독(고은정, 김병년, 2020), 낮은 삶의 만족도(반지윤, 이정민, 2021) 등 부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낙인감이 이러한 부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은 부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이 향후 부적응에 미치는 당연한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낙인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정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으로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의 요인을 지목하였다(예, 박봉선, 2019). 그러나 낙인감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낙인감은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내면화하는 자기상으로,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이인옥, 이은옥, 2006). 본 연구는 낙인감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자기통제 능력이 고갈되어 종단적으로 위험 행동에 취약해졌다는 가설을 확인함으로써 자기통제 능력의 향상을 돕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통제의 강도모델과 낙인감의 자아고갈모델을 학교 밖 청소년에 적용한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에 중단적으로 미치는 메커니즘을 새로운 이론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위험 행동은 주로 낙인 이론(stigmatization theory)으로 설명되었다. 낙인 이론은 사회 반응 이론(social reaction theory) 중 하나로, 자신에 대한 사회와 타인의 반응에 의해 비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특히 전통적 낙인 이론에 의하면, 어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질러 부정적인 낙인을 찍히게 되면 스스로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비행이나 위험 행동을 저지르게 된다고 봄으로써 (Becker, 1963) 반복적인 비행(예, 재범)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이때 최초의 일탈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이성식, 2007)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중단 사건 자체가 “일탈” 또는 “문제아”로 낙인찍히기 쉽다. 그러나 Becker의 4가지 낙인 모델(Becker, 1963; Bernburg, 2019)에 따르면 실제 일탈을 저질러 낙인을 경험하는 경우(pure deviant)도 있으나, 일탈을 저지르지 않고도 낙인을 경험하는 무고유형(falsely accused)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무고유형의 적응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비행으로 인해 학교를 중단한 경우는 10.3%에 불과해 그 외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무고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낙인감은 이들의 적응에 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인 이론은 낙인감을 경험한 이후의 비행이나 위험 행동을 저지르기까지의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낙인이론에 따르면 낙인감 경험으로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등 정체성에 변화가 생겨 2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을 하게 된다(Becker, 1963; Bernburg, 2019). 전술하였듯이 낙인감은 자아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과 개념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관계의 방향성을 검증하였고, 성인 진입기의 일탈 행동에까지 미치는 낙인감의 중단적이고 연쇄적인 영향이 자기통제를 매개로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자아 관련 인지적인 개념이 아닌 행동적으로 관찰하고 훈련하기 용이한 자아통제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개입을 위한 주요 타겟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중단 이후 중단적으로 낙인감이 유지되어 성인 진입기에는 위험 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통제 능력의 중요한 매개 역할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 중단 이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 해소가 중요하며, 특히 낙인감의 연쇄적인 고갈효과를 막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통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유형별 지원 내용을 확인하는 체계를 확립했다(여성가족부, 2014). 이때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이 중단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중단 직후 그리고 이후 장기적인 낙인감 수준을 확인하여

심리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내용적 측면에서 진로상담이나 생활정보제공(여성가족부, 2014)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학업 및 자립 지원일 경우에만 총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청소년지원센터,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 진입기 적응을 위해 학업 및 자립 지원 등 현실적인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낙인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 중단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낙인감은 사회적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낙인감을 해소하는 방법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이들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반응을 이끌 수 있는 캠페인(예, 다양한 이유로 학교 중단을 선택한 청소년의 사례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적응의 예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적응을 위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에는 자기통제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통제 향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통제는 전전두피질이 사고, 감정, 충동을 담당하는 피질하구조(subcortical structure)를 잘 통제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김양태, 2016). 현대사회에서 성인 진입기는 담배, 술, 중독과 같은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자극들은 뇌에서 모두 보상으로 인식되어 측좌핵(nucleus accumbens)에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킨다(Kelly & Berridge, 2002). 이때 이미 자기통제 능력이 상실된 흡연가나 마약중독자가 이러한 자극들에 노출된다면 측좌핵을 포함한 중뇌변연회로의 활성화도가 정상인들보다 더 크게 증가해 더 큰 보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David et al., 2007). 즉, 자기통제 능력이 상실되어 위험 행동 충동에 취약해진다면, 위험 행동을 보상으로 인식하고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유혹들에 저항했을 때 전전두피질들이 활성화되어 피질하구조를 잘 통제하는 상향통제(top-down)가 이루어진다면 충동에 대한 조절, 즉 자기통제 능력이 향상된다(김양태, 2016). 성인 진입기 발달단계는 위험 행동에 취약하며(Arnett, 2005), 본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낙인감이 유지되어 자기통제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행동에 취약해지고 더 나아가 위험 행동을 보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청소년 시기 자기통제 및 사회적 통제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이러한 경험이 또래에 비해 제한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위험 행동이 보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행동 조절 및 통제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이라는 대규모 종단 패널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이후 성인 진입기까지의 종단적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가 2014년부터 5년간

수집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학생들의 학교 중단 사유 등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최근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위험 행동을 흡연, 음주, 도박, 자살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세부적으로 발달단계별 심각성에 차이가 있어 단순 경험의 합으로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일탈부터 범죄 수준까지 포함하는 위험 행동은 초기 성인기에 취약한 다양한 위험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 및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Hair et al., 2009) 낙인감과 자기통제 간 종단적 영향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초기 성인기 다양한 수준의 건강위험 행동과 범죄행동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2차 데이터를 사용했기에 주요 연구변수인 낙인감이 포함된 2차년도 데이터부터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에 해당 패널데이터가 2차년도부터 표본 유지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2차년도 표본 유지율 77.2%) 1차년도 통제변수를 사용해 최초 모집된 온전한 샘플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패널의 표본모집 및 추적의 특성상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고위험 집단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지금까지 자기통제의 강도 모델(Baumeister et al., 2007)과 낙인감의 자아고갈모델(Inzlicht et al., 2006)은 모두 실험연구로 제한된 상황에서 참여자들에게 자기통제 및 낙인감을 주는 즉각적인 테스트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자기보고식으로 낙인감과 자기통제 수준을 확인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험연구의 낮은 생태학적 타당도를 고려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실증 연구로 같은 가설이 지지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자체를 문제로 보는 시선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한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이들을 단순히 위험집단으로 분류하는 관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부정적 적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최지은 외(2019)에서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적응 결과를 보고한 선행연구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 내 비교집단을 두어 성인기 적응/부적응 집단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규학교 체계 밖에서도 적응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의 요인을 확인한 결과, 청소년기부터 성인 진입기까지 사회적 낙인감과 학력주의 인식이 감소하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받으며 또래관계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적인 성인(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 대입공부/대학재학/기술습득/자격증 준비/근로 중 한 가지 12개월 지속)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를 사용한 Choi et al. (2023)의 연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중단 전 경험하는 맥락적 위험요인의 이질적인 조합에 따라 이후

적응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나타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위험집단으로 분류되는 관점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곧 비행 청소년이라는 1차적 낙인이 찍혀 이후 위험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통적인 낙인이론에 따른 설명의 한계를 제안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지원 및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집단이기에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설명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학교 중단 경험을 하였더라도 이후 성인 진입기 위험 행동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무엇일지, 학교 밖 청소년의 낙인감 및 자기통제의 종단적 변화에도 이질적인 차이가 있을지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좀 더 세분화된 예방 및 개입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정, 김병년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진로장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1(4), 33-63. doi:10.14816/sky.2020.31.4.33
- 김병년, 최홍일. (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25.
- 김양태 (2016). 자기조절의 신경과학. **생물치료정신의학**, 22(1), 5-12.
- 김진숙, 신혜숙, & 문현주. (2014). 시설보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낙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조절변수 용서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3), 63-74.
- 박동진, 김나연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71-87. doi:10.36697/skya.2019.5.3.71
- 박봉선 (2019).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2, 81-106. doi:10.17997/SWRY.62.1.4
- 박시하 (2015). **낙인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현숙, 정선영 (2011). 청소년의 위험행동 구조모형 구축. **한국간호과학회**, 41(3), 364-373.
- 반지윤, 이정민 (2021).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가 사회적 낙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청소년학연구**, 28(1), 341-366. doi:10.21509/KJYS.2021.01.28.1.341
- 백혜정 (2009).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비행 경험 관계에서의 부모의 지지와 자기통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37-56.
-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 정책리포트 제3호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비용 추계 연구**. 여성가족부. <http://www.ypec.re.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linkId=66&menuId=MENU00312&schType=1&schText=%ED%95%99%EA%B5%90%20%EB%B0%96%20%EC%B2%AD%EC%86%8C%EB%85%84%20%EC%82%AC%ED%9A%8C%EC%A0%81%20%E>
- 여성가족부 (2021).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및 인구 변화와의 연계성**. 여성가족부. <https://www.ypec.re.kr/board/view?pageNum=2&rowCnt=10&no1=11&linkId=1522&menuId=MENU00312&schType=0&schText=&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 유태정, 김석선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우울과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24(2), 127-135. <http://www.jkpmhn.org/upload/pdf/jkpmhn-24-127.pdf>
- 윤혜미, 남영옥 (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3), 127-153.
- 이래혁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을 통한 학업중단 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보건과 복지**, 23(2), 165-190. doi:10.23948/kshw.2021.6.23.2.165
- 이성식 (2007). 청소년비행과 비공식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71(3), 1105-1127.
- 이인옥, 이은옥 (2006). 낙인 (stigma) 개념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13(1), 53-66.
- 이재경, 이래혁 (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4(2), 1029-1042.
- 이지혜, 조은호, 박미연, 김현경 (2020). 학교밖 청소년의 부모지지 및 또래지지가우울증상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과사회적 낙인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2), 165-180. doi:10.35574/KJDP.2020.6.33.2.165
- 임하늘, 최재용 (2021).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Hirschi 의 수정된 자기 통제이론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1(4), 5-39. doi:10.22816/polsci.2021.21.4.001
- 전경숙, 이효영 (2010). 우리나라 남녀 성인의 폭음 및 문제음주 영향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1), 91-103.
- 조수민, 안은미, 정익중 (2020).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장벽 유형과 사회적 낙인감 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22(3), 201-228. doi:10.19034/KAYW.2020.22.3.08
- 주금옥 (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n.d.). 특별지원. <http://www.kdream.or.kr/user/sub/sub04/sub040404.asp>에서 2023년 11월 23일 인출.
- 최지은, 이지원, 정다빈, 이해나, 김현경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궤적과 성인초기 적응 여부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3(1), 37-52. doi:10.35574/KJDP.2020.3.33.1.37
- 최홍일, 정윤미 (2020).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9(4), 31-58. doi:10.24300/jkscw.2020.12.69.4.31

- 통계청 (2021). **고등교육 이수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8&clasCd=7>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학교 밖 청소년 심리정서 및 환경적 요인 측정 척도 개발 연구**. https://www.kyci.or.kr/fileup/lib_pdf/2022-240.pdf
- 한국청소년상담복지연구원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https://www.kyci.or.kr/fileup/lib_pdf/2016-125.pdf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Data set]**. <https://tinyurl.com/muzhmce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23).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https://www.ypec.re.kr/fileDownload?titleId=1639&fileId=1&fileDownType=C¶mMenuId=MENU00312>
- K스피릿 (2021.9.17). **우리나라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8%, OECD 국가 중 1위**. <http://www.ikoreanspirit.com/news/articleView.html?idxno=64981>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doi:10.1037/0003-066X.55.5.469
- Arnett, J. J. (2005). The developmental context of substance use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Drug Issues*, 35(2), 235-254. doi:10.1177/002204260503500202
- Arnett, J. J. (2016). Does emerging adulthood theory apply across social classes? National data on a persistent question. *Emerging Adulthood*, 4(4), 227-235. doi:10.1177/2167696815613000
- Baumeister, R. F., Vohs, K. D., & Tice, D. M. (2007). The strength model of self-control.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6), 351-355. doi:10.1177/2167696815613000
- Baumeister, R. F. (2012). Self-control—The moral muscle. *The Psychologist*, 25(2), 112-115.
- Becker, H. S.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Free Press.
- Bernburg, J. G. (2019). *Labeling theory*. In Marvin D. Krohn, Alan J. Lizotte, Gina Penly Hall (Eds.), *Handbook on crime and deviance* (pp. 179-196). Springer. doi:10.1007/978-1-4419-0245-0_10

-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Springer.
- Choi, J., Lee, J., Park, M. Y., & Kim, H. K. (2023). Heterogeneity in Korean school dropouts and its associations with emerging adulthood adjust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85*, 101509. doi:10.1016/j.appdev.2022.101509
- David, S. P., Munafò, M. R., Johansen-Berg, H., MacKillop, J., Sweet, L. H., Cohen, R. A., et al. (2007). Effects of acute nicotine abstinence on cue-elicited ventral striatum/nucleus accumbens activation in female cigarette smokers: a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tudy. *Brain Imaging and Behavior, 1*, 43-57. doi:10.1007/s11682-007-9004-1
- Doyle, D. M., & Molix, L. (2015). Social stigma and sexual minorities'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1*(10), 1363-1381. doi:10.1177/0146167215594592
- Elder G. H., Jr.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doi:10.1111/j.1467-8624.1998.tb06128.x
- Fishbach, A., & Trope, Y. (2005). The substitutability of external control and self-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3), 256-270. doi:10.1016/j.jesp.2004.07.002
- Goffman, E. (1963). *Embarrassment and Social Organization*. In N. J. Smelser & W. T. Smelser (Eds.), *Personality and social systems* (pp. 541-548). John Wiley & Sons, Inc. doi:10.1037/11302-050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doi:10.2307/1964276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k, R. J., & Arneklev, B.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doi:10.1177/0022427893030001002
- Guzman, L., Goto, S. G., & Wei, K. (2016). Self-control depletion in predominantly white institutions: Intra and intergroup variability in the relations among stigma sensitivity, mental health, and academic motiv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5*(9), 754-780. doi:10.1521/jscp.2016.35.9.754

- Hair, E. C., Park, M. J., Ling, T. J., & Moore, K. A. (2009). Risky behaviors in late adolescence: co-occurrence, predictor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3), 253-261. doi:10.1016/j.jadohealth.2009.02.009
- Harvey, R. D.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ical impact of social stigm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2), 174-189. doi:10.1080/0022454010960054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doi:10.1080/107055199009540118
- Inzlicht, M., McKay, L., & Aronson, J. (2006). Stigma as ego depletion: How being the target of prejudice affects self-control. *Psychological Science, 17*(3), 262-269. doi:10.1111/j.1467-9280.2006.01695.x
- Inzlicht, M., & Kang, S. K. (2010). Stereotype threat spillover: how coping with threats to social identity affects aggression, eating, decision making, and atten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3), 467-481. doi:10.1037/a0018951
- Inzlicht, M., & Schmeichel, B. J. (2012). What is ego depletion? Toward a mechanistic revision of the resource model of self-control.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7*(5), 450-463.
- Inzlicht, M., & Schmeichel, B. J. (2012). What is ego depletion? Toward a mechanistic revision of the resource model of self-control.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7*(5), 450-463. doi:10.1177/1745691612454134
- Kelley, A. E., & Berridge, K. C. (2002). The neuroscience of natural rewards: relevance to addictive drugs. *Journal of Neuroscience, 22*(9), 3306-3311. doi:10.1177/1745691612454134
- Lenhardt, R. A. (2004). Understanding the mark: Race, stigma, and equality in context. *NYUL Rev, 79*, 803. https://heinonline.org/HOL/Page?handle=hein.journals/nylr79&div=27&g_sent=1&casa_token=Nrm4M0zp-UsAAAAA:-4SpzQy6K7ohrmFAhAHvvhpelAfXASUV_F7lZmtWWM-fl6YI08JpS3sYgqecEdcphFPhNv2T&collection=journals
- Liem, J. H., Lustig, K., & Dillon, C. (2010).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 among emerging adults: A comparison of high school dropouts and graduate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7, 33-43. doi:10.1007/s10804-009-9076-9
- Maggs, J. L., Jager, J., Patrick, M. E., & Schulenberg, J. (2012). Social role patterning in early adulthood in the USA: Adolescent predictors and concurrent wellbeing across four distinct configurations.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3(2), 190-210. doi:10.14301/llcs.v3i2.183
- Ministry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2020). 2019 Korea education statistics data analysis (Higher education statistics). Ministry of Education.
- Michael, K. & BenZur, H. 2007. "Risk - taking among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ocial and affective factors". *Journal of Adolescence*. 30. 17 - 31. doi: 10.1016/j.adolescence.2005.03.009
-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17). Mplus user's guide. Muthén & Muthén.
- Nakagawa, S., & Cuthill, I. C. (2007). Effect size, confidence interval and statistical significance: a practical guide for biologists. *Biological Reviews*, 82(4), 591-605. doi:10.1111/j.1469-185x.2007.00027.x
- OECD. (2007). Education at a glance. <https://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40701218.pdf>
-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https://me2.kr/rcrvf>
- Park, G. S., & Kim, M. (2016). A comparative study of health status between students and out-of-school youth.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4(2), 17-26. doi:10.1080/13676261.2016.1145637
- Park, E., McCoy, T. P., Erausquin, J. T., & Bartlett, R. (2018). Trajectories of risk behaviors across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the role of race and ethnicity. *Addictive Behaviors*, 76, 1-7. doi:10.1016/j.addbeh.2017.07.014
- Prasetyo, F. A., & Gunawijaya, J. (2018). Removing Self-stigma: The Successes of People with Schizophrenia in Removing Self-stigma Through Self-control. *ANIMA Indonesian Psychological Journal*, 33(3), 145-160. doi:10.24123/aipj.v33i3.1691
- Schwartz, S. J. (2016). Turning point for a turning point: Advancing emerging adulthood theory and research. *Emerging Adulthood*, 4(5), 307-317. doi: 10.1177/2167696815624640

- Selig, J. P., & Little, T. D. (2012). Autoregressive and cross-lagged panel analysis for longitudinal data. In B. Laursen, T. D. Little, & N. A. Card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research methods* (pp. 265-278). The Guilford Press.
- Siegel, Larry. J. & Welsh, Brandon. C.(2018).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13th Ed)*. Wadsworth Publishing: Belmont, CA.
- Steele, C.M., Spencer, S.J., & Aronson, J. (2002). Contending with images of one's group: The psychology of stereotype and social identity threat.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4, pp. 379-440). Academic Press. doi:10.1016/s0065-2601(02)80009-0
- Tabachnik, D., & Fidel, J.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delines for determining model fit. *The Electronic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Method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 (1), 1-55.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doi:10.1111/j.0022-3506.2004.00263.x

ABSTRACT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stigma and self-control amongst Korean school dropouts and their effects on risk behaviors during emerging adulthood

Lee, Jiwon*·Choi, Jieun**·Kim, Hyoun K.***

The present study sought to examine the longitudinal and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stigma and self-control in Out-of-School Youth(OSY) and identify their longitudinal impact on risk behavior during their emerging adulthood. Data from the School Dropout Panel Study (Waves 1-4) in Korea was used, and the cross-lagged panel model and mediation model were analyzed. Our findings indicated that OSY's stigma significantly reduced the level of self-control longitudinally, while self-control did not influence the level of stigma, confirming only a longitudinal one-way effect of stigma on self-control. In addition, OSY's stigma showed consistently negative effects on health risk behaviors in the emerging adulthoods of the subjects studied through lowered self-control. Discussions 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efforts for the OSYs after school dropout in relation to 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were also explored.

Key Words: out-of-school youth, stigma, self-control, 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risk behaviors, dropout

*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Human life & Innovation Design, Yonsei University/ Joint Master and Doctoral Program Student 1st author

** Division of Urban Society Research, The Seoul Institute/ Associate Research Fellow

***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Human life & Innovation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